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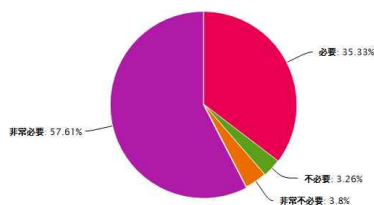
## 중국공정원, 2014년 한·중·일 과기협력 설문조사 현황

최근 중국공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한·중·일 과기협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공정원은 공학기술에 관한 정책연구, 학술활동,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공학한림원에 해당한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는 한·중·일 3개국 과기협력의 필요성, 과기협력이 3개국에 미치는 영향, 과기협력수준 평가(양적·질적), 3개국 과기협력의 전망과 잠재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투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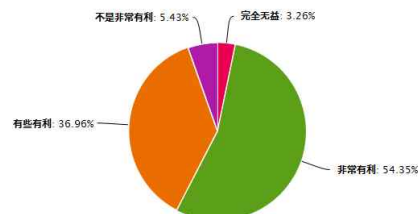
(<http://www.cae.cn/cae/jsp/questionsurvey/questionShow.jsp>)

“한·중·일 과기협력 필요성” 조사에서 57.3%가 과기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그림 1], “3개국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는 54.35%가 국가 이익에 “매우 유리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그림 1] 한·중·일 과기협력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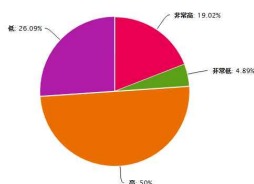


[그림 2] 한·중·일 과기협력이 3개국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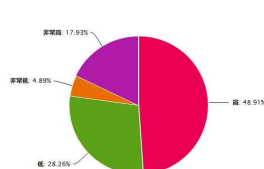


또한 “한·중·일 3개국의 과기협력 양적 수준평가”에서 “매우 높음”이 19.02%, “높음”이 50%으로 통계되었고[그림 3], “질적 수준평가”에서는 “매우 높음”이 17.93%, “높음”이 48.91%으로 통계되어[그림 4],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3개국 과기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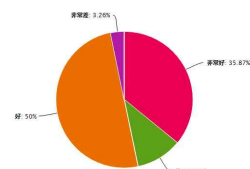
[그림 3] 한·중·일 3개국의 과기협력 수준평가(양적)



[그림 4] 한·중·일 3개국의 과기협력 수준평가(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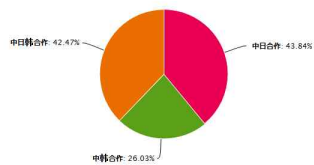


[그림 5] 한·중·일 과기협력의 전망과 잠재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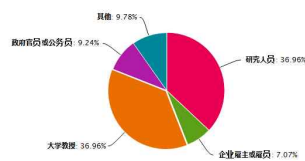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 과기협력 참여현황과 직업별·연령별 통계 분석을 하였다. 그중 최근 5년 한중협력 참여자는 26.03%로 중일협력 참여자 43.84%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것으로 통계되었다. 또한 참여자는 직업별로 대학교수(36.96%)와 연구원(36.96%)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참여자는 연령대별 통계결과를 보면 40~49세가 4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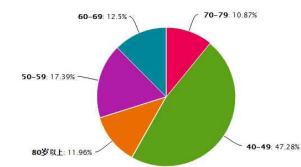
[그림 6] 설문조사 참여자의 최근 5년 과기협력 참여현황 통계



[그림 7] 설문조사 참여자의 직업별 통계



[그림 8] 설문조사 참여자의 연령별 통계



## [추진배경]

한·중·일 3개국 공학한림원은 공정과학기술 분야의 중요 학술기구이자 세계 공학한림원평의회(CAETS)의 회원단체이기도 하다. 3개국 공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3개국 공학한림원은 매년 윤번으로 “한·중·일 공학한림원 라운드테이블회의”를 소집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협력합의 등을 조율해왔고 지금까지 16차례 개최된바 있다. 지난 2013년 3개국 공학한림원은 에너지와 생태환경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학기술 분야의 중대공학기술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파악하고 심층 조사연구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자료출처]

중국공정원 홈페이지 <http://www.cae.cn/cae/jsp/questionsurvey/questionShow.jsp>